

**방안 5: 응찰이후 낙찰가능성 최대화**

○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자격있는 공급자의 참여로 경쟁입찰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구매입찰에 낙찰되려면, 동 구매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매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낙찰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 유무를 구매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필요함.

**방안 6**

○ 각국의 비강제적인 표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

- 한국의 KS 마크와 같이 해당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강제적인 표준규격이 있음. 조달과정에서 이들 표준규격의 준수여부가 낙찰업체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응찰시 이러한 표준에 대한 지식 습득이 필요함.

---

**◆ 政府 施策 ◆**


---

## 기술개발자금 財政支援 확대

### - 상공부, 94년중소기업육성시책 國會제출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구성을 올해의 1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확대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올해의 70개에서 75개, 이업종교류그룹의 결성도 113개에서 130개로 각각 확대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각종 재정기금에 분산돼 있는 기술개발자금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확대,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부문은 올해의 900억원

에서 1444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부문은 1030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해 재정에서 각각 1507억원 및 2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1500억원이 증가한 3천억원을 정부에서 출연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94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현재의 0.24%에서 97년까지 1%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디자인향상을 위해 연간 2천명의 산업체소속 디자이너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97년까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9700여건의 디자인 개발과제를 선정,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술 및 기능인력난 완화에도 주력, 중소기업진흥공단내 2년제및 6개월 야간기술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95년까지 전국 10개소의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중소기업연수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개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병역특례제도 대상업종도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도 적극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신규수출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상담과 해외시장개척등을 지원, 자생력 있는 중소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보육사업을 貿公을 통해 실시, 연간 100개사를 육성키로 했다.

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투자제도의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개선, 개별기업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돼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중소기업의 공동시설 확충과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공장용지 공급등 간접지원형식의 기능별부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5개 공동창고시설에 대해 약11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공급하고 97년까지 염색·도금등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20개 협동화단지조성을 위해 94년도에 총200억원을 공급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동집배송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도 민간중심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의 현직 및 퇴직기술자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자Pool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자동화 및 정보화도 꾸준히 추진하되 민간전문업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해 기업진단이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전지도를 받은 업체에 대해 공급키로 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장용지 공급확대에도 주력, 내년도에 아파트형공장 9개동을 준공하고 6개동을 착공하며 시화 및 남동공단에 5만평규모의 임대공단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및 중소기업상호간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 민간차원의 자율적 협조체제를 구축키 위해 현재 124개인 수급기업협의회의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개발초기단계부터 조립대기업과 중소부품업체가 공동참여, 국산화성공후 개발품목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열화예시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모기업의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를 적극 유도키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용의 세액공제를 현행 지출증가분의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 우대지원하는 연계보증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기업내 수급기업협력기금의 조성규모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공동판매도 금년의 2조8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조원규모로 확대하고 원자재공동구매는 금년의 6500억원규모에서 내년에는 7500억원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신규설립을 촉진해 나가되 현재 기능이 부실한 기존조합의 정리도 추진하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신진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과 공동전시, 판매장의 설치, 단체표준제정등 기능을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각,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수립, 12월말까지 상공부에 제출토록하고 각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정, 확정키로 했다.

## 工發基金지원확대키로 - 내년 2510억으로 확대 -

정부는 올해 공업발전기금 지원규모를 당초계획보다 180억원이 많은 2138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80억원, 17.4%가 증가한 251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지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기금 93 운용계획수정안 및 94년도 운용계획안을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앞으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정, 기계류 및 부품·소재 국산화계획과 연계한 시제품개발에 당초계획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 국산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보완공사가 필요한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당초계획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10억원을 지원, 섬유업계의 조업원활화를 도모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공업발전기금 지원은 시제품 개발등 ▲산업기술향상부문에 올해의 600억원보다 58.3%가 증가한 950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에 올해의 400억원보다 25%가 증가한 500억원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올해의 110억원보다 36.4%가 증가한 15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합리화사업부문은 올해의 1028억원보다 11.5%가 감소한 91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도 합리화사업의 업종별 지원액은 신발이 올해의 700억원보다 100억원이 적은 600억원, 직물이 올해의 100억원보다 30억원이 적은 70억원으로 각각 축소하고 편직·봉제·염색은 올해와 같은 220억원으로 책정한데 비해 패션디자이너기자재구입에 대한 지원은 올해의 8억원보다 150%가 증가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有望·기술先進化 中企制度 통합 - 자금·기술 모두 支援키로 -

상공지원부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

술을 집중지원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분리운영해온 '유망중소기업'제도와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부문에서만 우대를 받았던 유망중소기업은 기술지원까지 받고 기술선진화 업체는 기술지원이외에 자금부문에서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유망중소기업제도와 기술지원에 중점을 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로 분리돼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같이 두 제도를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의 경우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진기술의 지원을 통한 자력성장기반의 확립이 필요한 점을 감안, 유망중소기업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지원이외에 전문가 파견등을 통해 선진기술까지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기술선진화업체의 선정기준인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종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기술지도 대상업체를 크게 확대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기관을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국한,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시부터 금융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업기술원을 유망중소기업의 선정시 참여토록 했다.

상공부는 또 그동안 貿公과 생산기술 연구원등 비금융기관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금리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개선키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 평가시 타기관 발굴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대해서도 타기관발굴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지원토록 요청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망중소기업제품의 상설전시관을 설치, 전시회 개최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제도는 지난 83년부터 도입, 지금까지 금융기관등 각 발굴기관에서 총8490개사(현존 3649개사)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우대금리 적용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술지원의 정

우는 기술정보 지원에 그쳐 왔다.

또 기술선진화업체 지정제도는 지난 90년부터 도입,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공진청과 생산기술연구원등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외국기술자를 초청, 품질관리와 생산 애로분야를 대상으로 선진기술등 고급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457개사가 선정돼 있다.

## 시험연구설비 現況전산화 — 工振廳, 중소기업活用알선키로 —

공업진흥청은 제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 산재돼있는 시험연구설비 현황을 전산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들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했다.

공진청은 전국지방공업기술원, 민간검사소, 대학 및 기업체부설 연구소등 총454개 기관의 고가 보유설비 9020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콤의 '천리안'에 연결, 기업들이 정보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공진청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들 설비의 보유기관명, 설비명, 시험항목, 설비의 정밀도, 이용 방법등 17개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기업들은 데이콤이나 지방공업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단말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진청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전산화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설비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공업기술원은 개방시험실을 운영, 중소기업이 필요한 설비를 언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한국산업규격 제정 고시 ■

공업진흥청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한국산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93. 10. 7 고시했다.

## ◦ 고시내용

고시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1993-442	KSC 6706	레이저빔용광파워미터시험방법
1993-443	KSC 6952	전플라스틱멀티모드광섬유의기계적특성시험방법
1993-444	KSC 6951	전플라스틱멀티모드광섬유의구조파라미터시험방법
1993-445	KSC 6372	전자기기용칩형고정탄탈륨고체전해커패시터
1993-446	KSC 0235	전자부품의테이핑(표면실장부품)
1993-447	KSC 6705	레이저출력측정방법

## ◆ 國內外 情報 ◆

## 中國 發電所건설 外資250억弗 유치

### — 向後8년간... 전력 倍加 —

중국은 앞으로 8년동안 발전소 건설사업에 약2백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電力工業部の 발표를 인용, 중국은 오는 2000년까지 전력공급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 사업에 외국기업의 합작 및 단독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電力工業部는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는 수익을 외화로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電力工業部는 또 이 분야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전력가격을 자율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발전소를 설립할 경우 20년간 중국측파트너와 공동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일리紙는 중국정부가 이미 해외기업이 참가하는 9개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5개 프로젝트는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한개 프로젝트는 외국기업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